



소형핵발전(SMR) 설치.어기구 반대, 정용선 '논의 부적절'



현대제철 주총장 앞에서 LNG발전 중단 촉구



"나는 기후유권자, 기후공약에 투표하겠습니다"

- ▶ 발행일 2024. 4. 8.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유형민
- ▶ 편집위원 팽말숙, 박희선, 조순형
임수진, 김정진, 박은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3 이달의 시

| 화인 / 도중환

4. 지역환경이슈1

| 소형핵발전(SMR) 설치..어기구 '반대', 정용선 '논의 부적절'

6. 지역환경이슈2

| 현대제철 주총장 앞에서 LNG발전 중단 촉구

7. 지역환경이슈3

| "나는 기후유권자, 기후공약에 투표하겠습니다"

8. 지역환경이슈4

| "산업단지+산폐장 패키지 추진 대기업 규탄"

9. 지역환경이슈5

| 당진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전환 캠페인

10. 지역환경이슈6

| 서울대 교수 및 학생 당진 찾아 환경현안 사업장 답사

11. 충남환경이슈1

| "총선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개발 공약, 즉각 철회해야"

12. 충남환경이슈2

| "기후 유권자가 판을 바꾼다, 기후정책에 한표 행사할 것"

13.충남환경이슈3

| 도로에 누운 천 명의 시민들... "아무도 버리지 마라"

14. 지구환경! 관심이슈?

| 꿀벌 78억 마리 실종... 그 범인은 바로?

16. 전국환경이슈1

|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 벌써 잊었나

17. 전국환경이슈2

| 국내 대표 증권사들의 석탄채 '그린워싱'

18. 전국환경이슈3

| 2024 총선,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질의 정당별 답변 결과

19. 3월 살림살이

20. 3월 활동소식

22. 4월 주요사업 계획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24. 광고



화인(火印)

(불에 달구어 찍는 쇠로 만든 도장)

도종환

비 올 바람이 숲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아카시아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오후에는 먼저 온 빗줄기가
 노랑붓꽃 꽃잎 위에 후두둑 떨어지고
 검은등뼈꾸기는 진중일 울었다

사월에서 오월로 건너오는 동안 내내 아팠다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그들을 부축하던 이들도 슬피 울었다

슬픔에서 벗어나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짙레꽃도 멍이 들어 하나씩 고개를 떨구고
 파도는 손바닥으로 바위를 때리며 슬퍼하였다

잊어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라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남쪽 바다에서 있던 일을 지켜본 바닷바람이
 세상의 모든 숲과 나무와 강물에게 알려준 슬픔이었다
 화인처럼 찍혀 평생 남을 아픔이었다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이었다

시집소개

이 시는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시집에 수록된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2023년 6월에 문학인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추모 시집을 출간하며 이 책의 작가 인세 전액과 출판사 수익금 10%는 아름다운재단 ‘기억0416 캠페인’에 기부되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잊지 말고 가슴으로 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핵발전(SMR) 설치..어기구 '반대', 정용선 '논의 부적절'

당진환경운동연합, 어기구·정용선 후보에 9가지 정책 질의
산업폐기물 반입범위 제한에..어기구 '찬성', 정용선 '반대'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소형핵발전소(SMR) 설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용선 후보는 '논의 부적절'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진시선거구 후보자에게 9가지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석탄발전부지 SMR 설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 반입 범위 제한, 석문호 해수순환 및 하구복원 등의 질문에서 후보자의 입장에 차이가 드러났다.

산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현재처럼 산업폐기물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져와 매립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산업폐기물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해 반입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찬성'하였으나 정용선 후보는 '반대'했다.

수질등급 6등급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한 석문호에 대해 해수 순환과 하구 복원으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수산자원 회복을 실현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추가 논의 필요'라고 밝혔으나 정용선 후보는 '찬성'했다.

그 외에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일방적 추진 반대, 추가 논의 필요', 정용선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복원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 범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 마련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추진 질문에는 두 후보가 모두 동일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부가 올해 수립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700MW 규모의 SMR을 반영할 계획이며 반발 여론을 의식해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용선 후보가 논의 부적절이라고 밝힌 것은 총선 이후 당장 닥쳐올 SMR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

게 답변을 회피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당진시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에게 지난 13일 9가지 내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며 20일까지 답변을 취합해 발표했다. [출처: 당진신문]

당진환경운동연합 2024 총선 정책질의 및 답변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소형핵발전(SMR)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반대	정용선	기타 (현 단계 논의 부적절)
2.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기타 (추가 논의 필요)	정용선	기타 (조건부 찬성)
3. 석문간척지에 30만두 규모의 축산단지 조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반대	정용선	반대
4.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당초 계획대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찬성	정용선	찬성
5. 산업폐기물 처리,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찬성	정용선	반대
6. 석문호 해수 순환 추진, 하구 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기타 (추가 논의 필요)	정용선	찬성
7. 석탄발전소 설계수명 도달 전 조기 폐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찬성	정용선	기타 (에너지 수급 균형 갖춰야)
8.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범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 마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찬성	정용선	찬성
9.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특구 지정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구	찬성	정용선	찬성

현대제철 주총장 앞에서 LNG발전 중단 촉구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기자회견 개최
“그린수소 기반한 올바른 탄소중립 추진해야”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3월 26일 현대제철 주주총회가 열린 인천 하버파크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현대제철 주주총회가 열린 인천 하버파크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LNG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환경단체들이 참여했다.

현대제철 주주총회에 맞춰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현대제철의 자가 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에 기반한 올바른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LNG발전소 건설이 탄소중립 수단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는 달리 2030년 이후 한전 구매전력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며 “LNG발전소 건설 추진은 탄소중립을 외면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업의 이윤만을 높이겠다는 근시안적인 꼼수로, 또 하나의 그린워싱 사례”라고 비판했다.

손창원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자가 LNG발전이 당장에는 전기요금을 절감해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탄소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 무역질서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현대제철에 큰 손해가 되고 좌초자산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당진시대]

“나는 기후유권자, 기후공약에 투표하겠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총선 기후유권자 캠페인 펼쳐



지난 1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기후유권자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8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기후유권자 선언, 기후투표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선거, 기후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전국의 기후환경단체들과 함께 기후유권자 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4월 10일 투표일 전까지 매주 월요일 기후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별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정보에 민감도가 높으면서 실제 투표 의향도 있는 이른바 ‘기후유권자’가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이번 22대 국회에 달려 있다”며 “이번 총선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 선거 의제가 되도록 기후유권자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난 해 발표한 6차 종합보고서에서 2030년까지가 기후위기를 막을 인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와 기후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 겹치는 셈이다.

[출처: 당진신문]

“산업단지+산폐장 패키지 추진 대기업 규탄”

전국 산폐장 피해지역 주민 상경집회
당진서도 합덕·순성에 SK 산단 추진



전국에서 상경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와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SK에코플랜트 등이 100만 평 규모의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폐장이 입주해 있는 전국 11곳의 지역주민들이 상경해 집회를 벌였다. 당진에서도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상경집회에 참여해 SK와 태영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산폐장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14일 강릉, 예산, 사천 등 산폐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와 여의도 태영빌딩 앞에 모여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는 대기업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국 11개 지역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이 주최한 이날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에서는 집회와 시가행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책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 보장과 주민 피해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 개선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 등 5가지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SK와 태영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규모 산폐장을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SK그룹도 충남에서만 당진, 공주, 서산, 예산, 아산 등 5개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지역대책위,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겨 기업의 배만 불리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으며 사후처리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폐기물 처리정책 전환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당진시대]

당진환경운동연합, 탈핵 에너지전환 캠페인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탈핵 에너지전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이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맞이해 탈핵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일 오후 5시 당진 구터 로타리에서 진행된 에너지 전환 캠페인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핵 말고 바람, 안전한 바다 안전한 식탁’ 그리고 ‘멈춰라 해양투기 반대한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아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 앞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나간 일이 아니며 핵사고의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지난 해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시작됐다”며 “전 세계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핵발전에 대한 맹신으로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흐름을 거슬러 핵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한 핵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 에너지의 날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출처: 당진신문]

서울대 교수 및 학생 당진 찾아 환경현안 사업장 답사

현대제철, 당진화력, 대산유화단지 등 주요 현장 둘러봐



지난 3월 30일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이 당진을 방문해 교로리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소 앞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후위기와 인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과 교수 등 31명이 지난 3월 30일 토요일 당진을 방문해 당진과 서산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현안 사업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을 찾은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은 오전 10시 1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 도착해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현대제철에 이어 석문면 교로리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소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으로 부터 민자 석탄화력발전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루기까지 8년간 투쟁의 역사를 청취했다.

이어 당진화력발전소 앞으로 이동해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김병빈 센터장으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현황과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배경,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역할 등을 청취한데 이어 석문각으로 이동해 당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주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당진 지역 주요 사업장을 둘러본 뒤 도비도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둘러보기 위해 대산읍 황금산에 올라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둘러보며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권경숙 센터장으로부터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제철, 석탄발전,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주요 사업장이 밀집한 당진과 대산을 둘러본 서울대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규모에 놀라며 지역에 전가되고 있는 환경 피해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사무국]

“총선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개발 공약, 즉각 철회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지난 11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충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민생토론을 진행하고 “서산 비행장 일대 141km²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지사 김태흠) 역시 서산공군기지 활주로를 활용한 민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반환경 개발”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막대한 예산낭비... 면밀한 작전성 검토 필요”

충남환경운동연합(아래 단체)은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공항 추진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적자가 뻥튀기 예상된다”며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공항의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언과 관련해서도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에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m²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뜬금없이 서산 비행장 일대 141km²의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총선 코앞을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서산공항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경제성도 낮고 종합평가에서 적자 예상으로 타당성도 없는 사업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업이다. 이미 공항 추진 근거나 필요성 등의 의미를 상실한 사업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기후 유권자가 판을 바꾼다, 기후정책에 한표 행사할 것”

충남기후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일 충남기후유권자네트워크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 총선 충남기후유권자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충남행동,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기후유권자네트워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 총선 충남기후유권자 네트워크'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 10일 총선 출마자들과 정치권에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후 유권자가 판을 바꿀 수 있다”라며 “기후정의 유권자로서 기후위기 정책에 적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한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위기, 최우선 과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략)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재난의 문제이다.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과감히 감축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며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 과제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황성열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지난해 여름 가을은 유례없이 뜨거웠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이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어느 곳에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국민들이 스스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기후유권자네트워크를 발족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략)

한편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충남도당 등 지역 정당들에게도 기후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정당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도로에 누운 천 명의 시민들... “아무도 버리지 마라”

태안에서 노동자와 시민 1000여 명이 모여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요구하며 거리 행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30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 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5년 말부터 시작되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추진위는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를 외치면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태안읍 중심 도로변을 통해 태안군청을 경유하여 한국서부발전(주) 본사 정문 앞까지 행진을 펼쳤다.

노동, 시민, 환경 단체 등 151개의 단체와 325명의 개인이 참여한 추진위가 준비한 이번 집회와 행진에는 충남 태안, 당진, 보령의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충남의 시민들 이외에도,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울산,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시민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중략)

황성렬 기후위기충남행동 공동대표도 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라고 충남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지역소멸의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오로지 개발 자유 구역 재추진, 그린벨트 해제 등의 개발 공약, 기득권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들만을 말하고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중략)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3시부터 2시간 동안



지난 3월 30일 태안 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집회에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태안버스터미널 앞 4차선 도로를 따라 시내 중심가를 지난 태안군청을 경유하여 서부발전 본사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정부, 지자체와 발전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략)

행진은 서부발전 본사에 멈추고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대형 글자 피켓팅으로 마무리됐다.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꿀벌 78억 마리 실종... 그 범인은 바로?



꿀벌이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초, 꿀벌의 실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때 사라진 꿀벌의 개체수만 전체의 약 16%인 78억 마리에 이릅니다.

자연적인 일로 치부하기엔 그 수가 지나치게 크고, 생태계에서 꿀벌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꿀벌의 집단폐사, 도대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1. 사라지고 있는 꿀벌의 먹이, 밀원

우리나라 꿀벌은 굶주려 있습니다. 꿀벌이 꿀가루(화분)나 꿀(화밀)을 채취하는 대상을 '밀원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벌은 밀원수의 화분과 화밀에서 각각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 밀원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원수의 대표적인 예는 아까시나무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 꿀의 70%가 아까시나무에서 날 정도입니다. 이 아까시나무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래종이다 보니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제거되었고, 남아 있는 나무도 수령이 오래돼 제대로 된 꽃가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까시나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밀원수가 아까시나무에만 집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는 4~5월 사이로 짧습니다. 대부분의 벌은 나머지 기간에 설탕만 먹고 생존하는데, 설탕에는 밀원수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없어 건강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원수의 수와 종류가 줄어들자 제대로 된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한 벌의 면역력이 약해져, 외부 위협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와 생태 엃박자

지금의 한반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12~2008년 사이 전 세계 연평균 기온은 약 0.7도 올랐지만, 한반도는 1.7도나 올랐습니다. 그 결과, 벌이 동면에서 깨어나

꽃을 찾으러 떠나는 시기에 꽃이 더 일찍 피었다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평년보다 따뜻한 가을과 겨울이 이어지자, 봄이 온 줄로 안 여왕벌이 알을 낳고 피어나지 않은 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기후변화로 벌의 활동 기간과 식물의 성장 기간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해 생태 엽박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 기후위기와 꿀벌 기생충, 응애

기후위기는 최근 문제시되는 꿀벌 기생충인 응애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응애란 벌의 몸을 타고 벌통으로 들어와 아기 벌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입니다. 이 기생충은 아기 벌과 어른 벌의 영양분을 흡수해 벌을 폐사시킵니다.

이러한 응애 역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그 밀도가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는 역대 최장의 가뭄현상이 일어났죠. 그 결과 최근 응애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벌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응애가 꽃을 찾으러 나온 벌의 몸을 타고 벌통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꿀벌에게 치명적인 농약

요즘 농가에서는 농약을 드론으로 뿌리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드론 방역이 손쉬운 방제 방법입니다. 하지만 농약에 취약한 꿀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드론 방제는 희석한 농약이 아닌 원액을 사용하다 보니, 의도와는 달리 논밭에서 떨어진 곳까지 밀도 높은 농약이 퍼지는 일이 잦거든요.

꿀벌은 직접 농약의 영향을 받아 즉사하기도 하고, 농약이 묻은 꽃가루나 꿀을 먹다가 농약에 오염되어 서서히 죽거나 비행 능력과 기억 능력

이 떨어져 벌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꿀벌,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을까?

꿀벌과 야생벌은 꽃을 비롯한 밀원수의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꽃을 따라 여러 식물을 돌아다니며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 번식을 가능케 하는 거죠. 밀원수는 벌이 없으면 번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생태계의 '인구 절벽'과도 비슷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밀원수는 우리가 먹는 채소와 야채뿐 아닌 해바라기, 유채, 동백나무 등 국내 약 555종의 식물들을 포함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작물 가운데 무려 71종이 꿀벌의 수분으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작물이 아닌 식물에도 그에 의존하는 무수한 곤충이 있고, 그 곤충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있는 생태계 내 먹이사슬에 얽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손뿐 아닌, 우리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꿀벌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미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밀원을 확보하고, 꿀벌에 피해를 주는 농약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죠. 현재 꿀벌 문제의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벌이 '축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벌이 수분매개체로서 생태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협업할 국무총리 산하 '꿀벌 살리기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글: 그린피스 김현희]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 벌써 잊었나

환경·시민단체, 후쿠시마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대회 개최



지난 3월 16일 서울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대회에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 에너지 전환대회(이하 316에너지 전환대회)’가 시민 800여명과 120여 단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 참여를 비롯해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316에너지전환대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사고 13주년을 기념하며 탈핵사회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최 측과 참여자들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잊은 윤석열 정권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뿐만 아니라, 소형핵발전소(SMR)를 지역 곳곳에 지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은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기본권인 에너지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발언을 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해법을 정치권에 제시하면서 “기후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권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독일 탈핵운동가 지구의 벗(분트) 메르그너 회장이 직접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탈핵에 실패했다는 것은 거짓뉴스”라며, “핵발전은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탈핵 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의제 당사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발언과 사연을 듣는 선언대회 1부,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의 발언과 에너지선언을 낭독하는 2부로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열린 탈핵시민행동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 핵진흥으로 가능한가’ 토론회에 두 정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출처: 환경일보]

국내 대표 증권사들의 석탄채 ‘그린워싱’

“탈탄소 금융” 선언 NH, 미래에셋, 신한투자, KB, 한투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판매…시민단체 중단 촉구



3월 27일 NH투자증권본사 앞에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이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인수·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탈석탄 금융’ ‘기후금융’을 내세운 증권사들이 석탄 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자금 조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석탄을 넘어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엔에이치 금융타워 앞에서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6개 증권사(엔에이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케이비(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5개 증권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해놓고도 삼척블루파워의 사업을 완성케 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는 물론 이

미 글로벌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6개 증권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비롯한 석탄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19일 상업운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삼척발전소는 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8년 증권사들과 1조원가량의 총액인수확약을 맺은 바 있는데, 증권사들은 이 계약이 탈석탄 선언 이전에 이뤄진 것이란 점을 들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주관 등 석탄 금융 업무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석탄금융을 지속해온 명분이었던 총액인수확약은 올해 만기될 예정이다. 이에 단체들은 증권사들이 탈석탄 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총액인수확약 만기 연장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생략)

[출처: 한겨레 일부 발췌]

2024 총선,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질의 정당별 답변 결과



시민을 살리는 탄소중립

	민중당	국민의힘	녹색당	새로운미래	국민신당	정의당	고혁신당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기후적응 인프라 대책 확대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	반대	무응답	찬성	보류	무응답	찬성	찬성
'에너지 복지 예산' 3배로 확대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지역을 살리는 탄소중립

	민중당	국민의힘	녹색당	새로운미래	국민신당	정의당	고혁신당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반대	찬성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보류	찬성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탄소중립

	민중당	국민의힘	녹색당	새로운미래	국민신당	정의당	고혁신당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일부 반대	찬성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무론 찬성	찬성

탄소중립 자원

	민중당	국민의힘	녹색당	새로운미래	국민신당	정의당	고혁신당
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	찬성	무응답	(조건부)찬성	찬성	무응답	일부 반대	찬성

*시민의 불편리를 위해 모든 원내 정당의 답변을 공개하여 아직까지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2024기후총선프로젝트 기후변화청년운동본부, 기후변화평등연구소, 부산그린트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에코평립, 우리동네발전연합회등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풀씨생동연구소, 플랜1.0,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4년 3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21,855,896	인건비	급여	4,660,000
회 비	개인회비	5,120,000		퇴직적립금	420,700
	법인회비	20,000		사회보험료	504,900
	계	5,140,000		계	5,585,60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	경상비	업무추진비	58,000
	법인후원	273,000		세금과공과금	256,200
	계	273,00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312,610
	계	-		기타운영비	1,226,62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1,853,43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381,6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120,500
	계	-		생활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359,000
	계	-		홍보사업	198,080
기타수입	기타수입	-		모금사업	-
	계	-		연대사업	442,103
전입금	전입금	-		기타사업	74,000
	계	-		계	1,575,283
차입금	차입금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18,254,583
				계	18,254,583
월수입 총계		5,413,000	월지출 총계		9,014,313
수입 합계		27,268,896	지출 합계		27,268,896



남부시 남부노인복지관 환경 업무협약식

3월 08일 손창원 공동의장이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환경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2024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 대화

3월 11일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당사자 사회적 대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1인 시위 진행

3월 11일~3월 22일까지 매주 당진구터미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 참가

3월 12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
남시민사회연대회의 총회에 다녀왔습
니다.



2024년 세계물의날 기념 행사 참가

3월 22일 세계 물의날을 맞아 보덕사
앞에서 당진시 주최로 진행된 '함께 누
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행사에 참여
했습니다.



늘푸른물결 4월호 소식지 편집회의

3월 27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서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를 진
행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4/01 총선후보자 SMR 입장 발표 촉구 기자회견 - 충남도청
- ❖ 4/02 시민환경연구소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사업 회의 - 사무실
지구의 날 기념 탄소중립 실천대회 준비회의 - 당진2동사무소
- ❖ 4/03 서천군 에너지팀장 간담회 - 사무실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4/05 송산사회복지관 환경사업 업무협약식 - 송산사회복지관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4/08~4/09 철강캠페인 활동가 워크숍 - 현대제철, 당진화력
- ❖ 4/09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남부노인복지관 환경교육 - 남부노인복지관
- ❖ 4/12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5차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석탄발전 폐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내포혁신플랫폼
- ❖ 4/13 지구의 날 기념 당진천 벚꽃길 걷기 행사 - 어름수변공원
- ❖ 4/16 남부노인복지관 환경교육 - 남부노인복지관
- ❖ 4/17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4/19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6차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 ❖ 4/22 지구의 날 기념 현대제철 탄소중립 촉구 캠페인 - 현대제철 앞
녹색철강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 ❖ 4/23 충남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행사 - 내포혁신플랫폼
- ❖ 4/26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7차 1인 시위 - 구터 로터리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4월 30일(수)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자가 LNG발전소 건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이선미(원당동), 유난영(석문면), 김자현(서울시), 이진선(서울시), 배여진(서울시), 정석환(서울시), 최서윤(서울시), 은승채(서울시)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신영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민
 김병선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용 김형기 김형모
 김형태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종대 박종화 박찬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예 손창원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은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용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영자 유난영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미 이순영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석 이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혜슬 이호경 이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분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환 정중섭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조희두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수빈 최오상 최완택 최은진 최인호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흥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4월 3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2024년 지구의날 기념”

“기후의 위기를 넘어 탄소중립으로”

벚꽃길 걷기대회

06:30~08:00

경품추첨 08:50 이후

뮤아밴드버스킹

09:30~10:30

주관 : 지구의날 추진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 당진YMCA /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실천·확산대회

2024.4.13.토 08:00~11:00

어름수변공원/야외마당

- 탄소중립 실천영상, 퍼포먼스
- 탄소중립 시범마을 협약식
- 친환경물품/농수산물 판매,
탄소중립체험 부스 및 홍보부스
- 당진천 플로깅,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

탄소중립 나눔장터

- 기증 물품 판매
- 재활용품(폐건전지, 우유팩, 투명페트병)교환 행사
재활용품을 가져 오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화장지로 교환해 드립니다.
- 투명페트병 업사이클링 체험 행사
- 텀블러 무료 커피차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분들과 재활용품 교환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음료를 무료로 드립니다.(리보틀 캠페인-텀블러 재사용 나눔행사 병행)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